



국가데이터처
동남지방데이터청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23.(화) 12:00 배포 2026. 6. 23.(화) 09:00

동남권 끼인세대(40~54세)의 경제적 삶 2026

담당 부서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정은정 (051-850-3350)
		담당자	팀 장	이희정 (051-850-3360)
		담당자	주무관	전현주 (051-850-33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일 러 두 기

□ 분석배경 및 목적

- 끼인세대*(40~54세)는 지역경제의 핵심 생산연령층이면서,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노후 준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세대이나, 청년·고령층 중심의 정책지원 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은 부족했던 세대로 볼 수 있음

*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조례(25년 12월) 상 연령: 40~54세

- 이에 동남권 끼인세대의 경제적 삶을 인구·가구, 경제 활동, 경제 상황, 주관적 의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분석대상 및 내용

-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40~54세 끼인세대를 분석 대상으로 함
- 지역은 전국·수도권·동남권 자료를 비교하고, 동남권 내 부산·울산·경남의 지역별 특성을 분석
- 활용자료 및 분석 기간

영역	자료명	분석 기간	자료 출처
I. 인구학적 배경	인구총조사	2015-2024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4	
II. 경제 활동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2025	
	인구통계등록부 통합분석DB	2024	
III. 경제 상황	가계금융복지조사	2025	
IV. 주관적 의식	사회조사	2024, 2025	

□ 이용 시 주의 사항

- 상대표준오차(RSE)가 $25\% \leq RSE < 50\%$ 이면 「*」 표시를 하였으며, 자료 이용에 주의가 필요함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통계표 중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를 나타냄
- 이 보도자료는 동남지방데이터청 홈페이지(<https://mods.go.kr/ardn>)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새소식 > 보도자료 > 지역통계

목 차

□ 인포그래픽

□ 요약 1

I. 인구학적 배경

- 1. 끼인세대 인구 현황 6
- 2. 끼인세대 가구 현황 7
- 3. 가구원수별 가구 8
- 4.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9

II. 경제 활동

- 1. 고용률 및 실업률 10
-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11
- 3. 산업별 취업자 12
- 4. 직업별 취업자 13
- 5. 근로 및 사업소득 14

III. 경제 상황

- 1. 총괄 15
- 2. 자산의 규모 16
- 3. 부채의 규모 17
- 4. 가구소득의 규모 18
- 5. 가구 소비지출 19
- 6. 가구 비소비지출 20

IV. 주관적 의식

- 1. 계층의식 21
- 2. 고용 안정성 22
- 3. 일자리 만족도 23
- 4. 주관적 소득수준 24
- 5. 스트레스 정도 25
- 6. 삶의 만족도 26

동남권 **까인세대**(40~54세)의 경제적 삶 2026

I. 인구학적 배경 (2024년)

까인세대 인구 규모 및 비중

인구 수 ○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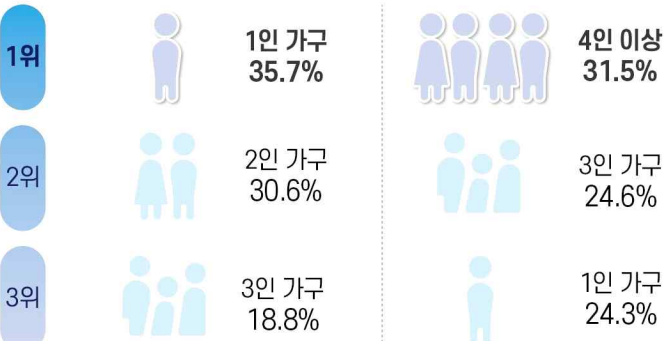


까인세대 가구 규모 및 비중

가구 수 ○ 가구 비중



가구원수별 가구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전체세대 까인세대



II. 경제 활동 (2025년)

고용률



60.9% 79.3%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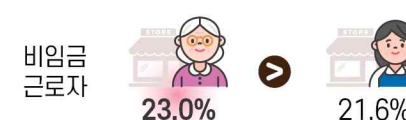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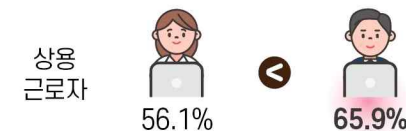


2.1% 1.4%



종사상지위

전체세대 까인세대



산업별 상위 취업자 (3개)

전체세대 까인세대



III. 경제 상황

* 가구당 평균(단위: 만 원)

자산·부채 = 2025년 3월말 기준 / 소득·지출 =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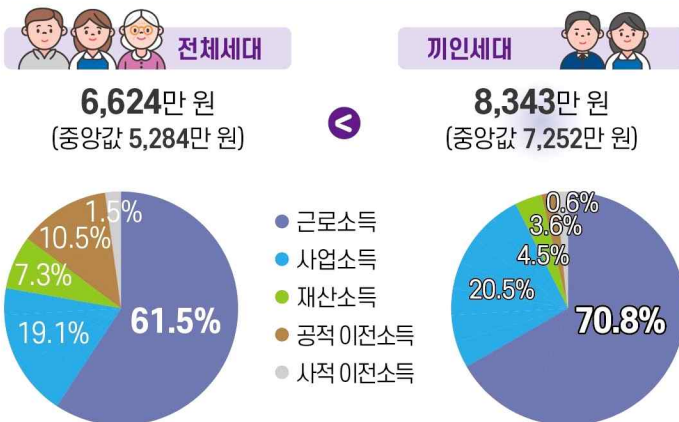
자산



부채



가구소득의 규모



소비지출



IV. 주관적 인식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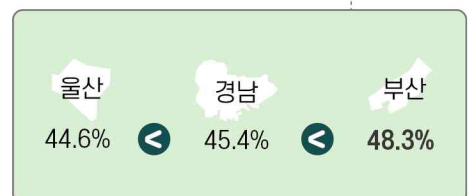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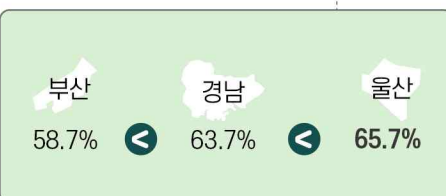
계층의식 '중'



고용 '불안함'



삶의 만족도 '만족'



I. 인구학적 배경

- (인구 현황) '24년 동남권 끼인세대(40~54세) 인구는 174만 5천 명이고, 동남권 전체 인구 대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3.6%로 나타남
- (가구 현황)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95만 2천 가구이며, 전체 가구 대비 끼인세대 가구 비중은 28.4%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가구)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1.5%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60.1%로, 전체세대 37.1%보다 높게 나타남

II. 경제 활동

- (고용률 및 실업률)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고용률은 79.3%로 전체세대(60.9%)보다 18.4%p 높고, 실업률은 1.4%로 전체세대(2.1%)보다 0.7%p 낮게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5.9%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세대(56.1%)보다 9.9%p 높게 나타남
- (산업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25.5%), 도소매업(1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24.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9%) 순으로 나타남
- (근로 및 사업소득) '24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4,922만 원으로, 전체세대(4,030만 원)보다 높고, 전국(5,326만 원) 및 수도권(5,800만 원)보다 낮게 나타남

Ⅲ. 경제 상황

- (총괄)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전체세대 가구보다 자산과 부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순자산은 3억 6,663만 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6%로 나타남
- (자산의 규모)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전체세대 가구(4억 2,651만 원)보다 2,951만 원 높게 나타남
- (부채의 규모)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939만 원으로, 전체세대 가구(7,257만 원)보다 1,681만 원 높게 나타남
- (가구소득의 규모)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8,343만 원으로, 전체세대 가구(6,624만 원)보다 1,719만 원 높게 나타남
- (가구 소비지출)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4,107만 원으로, 전체세대 가구(3,077만 원)보다 1,030만 원 높게 나타남

Ⅳ. 주관적 인식

- (계층의식) '25년 동남권 끼인세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61.9%로 전체세대(56.5%)보다 5.4%p 높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고용 불안감은 56.9%로 전체세대 (52.7%)보다 4.3%p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 '24년 동남권 끼인세대는 가정생활 및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전체세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6.5%로 전체세대(44.2%)보다 2.3%p 높게 나타남

I. 인구학적 배경

- (인구 현황) '24년 부산 끼인세대(40~54세) 인구는 71만 5천 명이고, 부산 전체 인구 대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2.4%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가구) '24년 부산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1.2%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24년 부산 끼인세대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59.4%로, 전체세대 36.0%보다 높게 나타남

II. 경제 활동

- (고용률 및 실업률) '25년 부산 끼인세대의 고용률은 78.8%, 실업률은 1.6%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 부산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세대(58.1%)보다 8.6%p 높게 나타남
- (산업·직업별 취업자) '25년 부산 끼인세대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18.2%), 직업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5%)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 및 사업소득) '24년 부산 끼인세대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4,893만 원으로, 전체세대(3,898만 원)보다 995만 원 높게 나타남

III. 주관적 인식

- (계층의식) '25년 부산 끼인세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58.7%로, 전체세대(53.6%)보다 5.2%p 높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 '25년 부산 끼인세대의 고용 불안감은 53.5%로, 전체세대 (50.5%)보다 3.0%p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 '24년 부산 끼인세대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비중이 69.7%로, 전체세대(63.8%)보다 5.9%p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부산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8.3%로, 전체세대(44.5%)보다 3.8%p 높게 나타남

I. 인구학적 배경

- (인구 현황) '24년 울산 끼인세대(40~54세) 인구는 26만 6천 명이고, 울산 전체 인구 대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4.9%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가구) '24년 울산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3.2%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24년 울산 끼인세대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62.8%로, 전체세대 41.6%보다 높게 나타남

II. 경제 활동

- (고용률 및 실업률) '25년 울산 끼인세대의 고용률은 78.0%, 실업률은 1.4%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 울산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8.1%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세대(61.5%)보다 6.6%p 높게 나타남
- (산업·직업별 취업자) '25년 울산 끼인세대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33.1%),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35.6%)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 및 사업소득) '24년 울산 끼인세대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5,662만 원으로, 전체세대(4,800만 원)보다 862만 원 높게 나타남

III. 주관적 인식

- (계층의식) '25년 울산 끼인세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65.7%로, 전체세대(63.6%)보다 2.1%p 높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 '25년 울산 끼인세대의 고용 불안감은 57.9%로, 전체세대(57.6%)보다 0.3%p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 '24년 울산 끼인세대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비중이 71.0%로, 전체세대(61.9%)보다 9.1%p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울산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4.6%로, 전체세대(45.5%)보다 0.9%p 낮게 나타남

I. 인구학적 배경

- (인구 현황) '24년 경남 끼인세대(40~54세) 인구는 76만 3천 명이고, 경남 전체 인구 대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4.3%로 나타남
- (가구원수별 가구) '24년 경남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1.1%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24년 경남 끼인세대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59.7%로, 전체세대 36.9%보다 높게 나타남

II. 경제 활동

- (고용률 및 실업률) '25년 경남 끼인세대의 고용률은 80.3%, 실업률은 1.2%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 경남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64.5%로 가장 높았으며, 전체세대(52.4%)보다 12.1%p 높게 나타남
- (산업·직업별 취업자) '25년 경남 끼인세대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29.6%),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24.5%)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근로 및 사업소득) '24년 경남 끼인세대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4,682만 원으로, 전체세대(3,876만 원)보다 806만 원 높게 나타남

III. 주관적 인식

- (계층의식) '25년 경남 끼인세대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 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63.7%로, 전체세대(57.2%)보다 6.5%p 높게 나타남
- (고용 안정성) '25년 경남 끼인세대의 고용 불안감은 59.7%로, 전체세대 (53.1%)보다 6.6%p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정도) '24년 경남 끼인세대는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낀 비중이 63.7%로, 전체세대(59.9%)보다 3.8%p 높게 나타남
- (삶의 만족도) '25년 경남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5.4%로, 전체세대(43.5%)보다 2.0%p 높게 나타남

I. 인구학적 배경

1. 끼인세대 인구 현황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인구는 174만 5천 명이며,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3.6%로 나타남

- (인구 규모) ‘24년 동남권 끼인세대(40~54세) 인구는 174만 5천 명으로, ‘15년(198만 5천 명) 대비 24만 명(-12.1%) 감소함
 - ‘15년 대비 울산(-14.8%), 부산(-14.5%), 경남(-8.7%) 순으로 감소함
- (인구 비중) ‘24년 동남권 전체 인구 대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23.6%로, ‘15년(25.5%) 대비 1.9%p 감소함
 - ‘24년 끼인세대 인구 비중은 울산(24.9%), 경남(24.3%), 부산(22.4%)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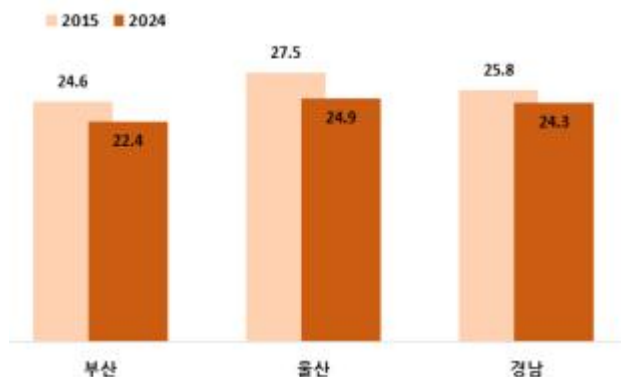
【그림 I-1-1】 동남권 끼인세대 인구 규모 및 비중 추이 (2015-2024)

(단위: 천 명, %)



【그림 I-1-2】 시도별 끼인세대 인구 비중 (2015, 2024)

(단위: %)



【표 I-1】 끼인세대 인구¹⁾ 규모 및 비중²⁾ (2015, 2024)

(단위: 천 명, %, %p)

연도	끼인세대 인구 규모(천 명, %)						끼인세대 인구 비중(% , %p)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15년	12,629	6,340	1,985	836	313	836	25.4	26.0	25.5	24.6	27.5	25.8
2024년	11,765	6,094	1,745	715	266	763	23.6	24.2	23.6	22.4	24.9	24.3
증감('24-'15)	-863	-246	-240	-121	-46	-73	-1.8	-1.7	-1.9	-2.1	-2.7	-1.4
증감률('24-'15)	-6.8	-3.9	-12.1	-14.5	-14.8	-8.7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

주1)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40~54세 연령의 내국인

주2) 비중 = 끼인세대 인구(40~54세)/총인구*100

2. 끼인세대 가구 현황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95만 2천 가구이며,

끼인세대 가구 비중은 28.4%로 나타남

□ (가구 규모) ‘24년 동남권에서 끼인세대가 가구주인 가구는 95만 2천 가구로, ‘15년(107만 3천 가구) 대비 12만 1천 가구(-11.2%) 감소함

○ ‘15년 대비 울산(-15.7%), 부산(-13.3%), 경남(-7.5%) 순으로 감소함

□ (가구 비중) ‘24년 동남권 전체 가구 대비 끼인세대 가구 비중은 28.4%로, ‘15년(35.6%) 대비 7.1%p 감소함

○ ‘24년 끼인세대 가구 비중은 울산(31.4%), 경남(29.8%), 부산(26.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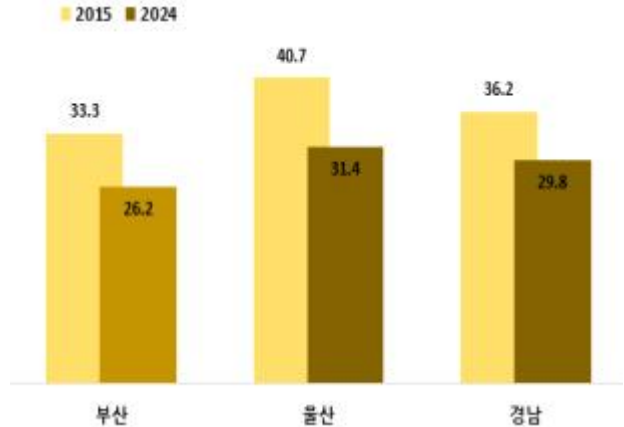
【그림 I-2-1】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 규모 및 비중 추이 (2015-2024)

(단위: 천 가구, %)



【그림 I-2-2】 시도별 끼인세대 가구 비중 (2015, 2024)

(단위: %)



【표 I -2】 끼인세대 가구¹⁾ 규모 및 비중²⁾ (2015, 2024)

(단위: 천 가구, %, %p)

연도	끼인세대 가구 규모(천 가구, %)						끼인세대 가구 비중(% , %p)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2015년	6,926	3,495	1,073	445	172	456	36.2	37.9	35.6	33.3	40.7	36.2
2024년	6,498	3,352	952	386	145	422	29.1	30.4	28.4	26.2	31.4	29.8
증감(‘24-‘15)	-428	-143	-121	-59	-27	-34	-7.1	-7.5	-7.1	-7.1	-9.3	-6.5
증감률(‘24-‘15)	-6.2	-4.1	-11.2	-13.3	-15.7	-7.5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총조사」

주1)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구주 연령이 40~54세인 일반가구(외국인가구, 집단가구 등은 제외)

주2) 비중 = 끼인세대 가구(40~54세)/총가구*100

3. 가구원수별 가구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1.5%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30만 가구, 31.5%), 3인 가구(23만 5천 가구, 24.6%), 1인 가구(23만 2천 가구, 24.3%)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4인 이상 가구 비중이 31.5%로 가장 높고, 전체세대 가구는 1인 가구 비중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부산과 울산의 끼인세대 가구 비중은 4인 이상 가구, 3인 가구, 1인 가구 순이나, 경남은 4인 이상 가구, 1인 가구, 3인 가구 순으로 나타남

【표 1-3】 가구원수별 가구 (2024)

(단위: 천 가구, %)

구분		총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비중		비중 ³⁾		비중		비중		비중
전 국	전체세대 ¹⁾	22,292	100.0	8,045	36.1	6,475	29.0	4,201	18.8	3,571	16.0
	끼인세대 ²⁾	6,497	100.0	1,580	24.3	1,262	19.4	1,582	24.4	2,073	31.9
수도권	전체세대	11,018	100.0	3,848	34.9	3,011	27.3	2,222	20.2	1,937	17.6
	끼인세대	3,351	100.0	785	23.4	627	18.7	843	25.1	1,096	32.7
동남권	전체세대	3,348	100.0	1,196	35.7	1,026	30.6	629	18.8	498	14.9
	끼인세대	952	100.0	232	24.3	187	19.6	235	24.6	300	31.5
부 산	전체세대	1,470	100.0	548	37.2	445	30.3	270	18.4	207	14.1
	끼인세대	386	100.0	94	24.3	76	19.6	96	24.9	120	31.2
울 산	전체세대	462	100.0	146	31.6	140	30.2	97	21.0	79	17.1
	끼인세대	145	100.0	34	23.4	26	18.0	37	25.4	48	33.2
경 남	전체세대	1,416	100.0	502	35.5	440	31.1	262	18.5	212	15.0
	끼인세대	421	100.0	104	24.7	85	20.1	102	24.1	131	31.1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주1)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구주 연령이 15세 이상인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주2)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구주 연령이 40~54세인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주3) 비중 = 가구원수별 가구/총가구*100

4.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24년 동남권에서 자녀와 같이 사는 끼인세대 가구는 60.1%로, 전체세대 중 자녀와 같이 사는 비중 37.1%와 큰 차이를 보임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는 57만 2천 가구로 60.1%를 차지하고, 전체세대(37.1%)보다 22.9%p 높게 나타남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비중은 울산(62.8%), 경남(59.7%), 부산(59.4%) 순으로 나타남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동거 자녀 수는 1.65명으로, 전체세대 (1.46명)보다 많고, 전국(1.66명) 및 수도권(1.65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평균 동거 자녀 수는 경남(1.66명), 울산(1.65명), 부산(1.64명) 순으로 나타남

【표 I -4】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¹⁾ (2024)

(단위: 천 가구, %, 명)

구분		총가구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평균 동거 자녀 수
			비중		비중 ⁴⁾	
전 국	전체세대 ²⁾	22,292	100.0	8,414	37.7	1.49
	끼인세대 ³⁾	6,497	100.0	3,885	59.8	1.66
수도권	전체세대	11,018	100.0	4,425	40.2	1.49
	끼인세대	3,351	100.0	2,025	60.4	1.65
동남권	전체세대	3,348	100.0	1,244	37.1	1.46
	끼인세대	952	100.0	572	60.1	1.65
부산	전체세대	1,470	100.0	529	36.0	1.44
	끼인세대	386	100.0	229	59.4	1.64
울산	전체세대	462	100.0	192	41.6	1.47
	끼인세대	145	100.0	91	62.8	1.65
경남	전체세대	1,416	100.0	523	36.9	1.47
	끼인세대	421	100.0	252	59.7	1.66

출처: 국가데이터처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주1) 미혼자녀, 기혼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 포함

주2)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구주 연령이 15세 이상인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주3)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가구주 연령이 40~54세인 내국인과 그 내국인을 포함하는 일반가구

주4) 비중 = 자녀와 같이 사는 가구/총가구*100

Ⅱ. 경제 활동

1. 고용률 및 실업률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고용률은 79.3%, 실업률은 1.4%로 나타남

- (고용률)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고용률은 79.3%로, 전체세대(60.9%)보다 18.4%p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79.1%)보다도 높게 나타남
 - 경남(80.3%), 부산(78.8%), 울산(78.0%) 순으로, 전체세대와의 차이는 부산(20.0%p)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실업률)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실업률은 1.4%로, 전체세대(2.1%)보다 0.7%p 낮게 나타났고, 전국(2.1%), 수도권(2.3%)보다 낮게 나타남
 - 경남(1.2%), 울산(1.4%), 부산(1.6%) 순으로, 전체세대와의 차이는 울산(-1.0%p)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Ⅱ-1-1】 고용률 (2025)

(단위: %)



【그림 Ⅱ-1-2】 실업률 (2025)

(단위: %)



【표 Ⅱ-1】 고용률 및 실업률 (2025)

(단위: %, %p)

구분	고용률						실업률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체세대 ¹⁾	63.2	63.2	60.9	58.7	60.5	63.2	2.9	3.2	2.1	2.2	2.4	1.9
끼인세대	79.5	79.1	79.3	78.8	78.0	80.3	2.1	2.3	1.4	1.6	1.4	1.2
차이 ²⁾	16.4	16.0	18.4	20.0	17.5	17.0	-0.8	-1.0	-0.7	-0.6	-1.0	-0.6

출처: 국가데이터처「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주1) 전체세대: 15세 이상 인구

주2) 차이: 끼인세대-전체세대

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65.9%), 비임금근로자(21.6%), 임시·일용근로자(12.5%) 순으로 나타남

- (종사상지위별)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65.9%), 비임금근로자(21.6%), 임시·일용근로자(12.5%) 순으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율은 65.9%로, 전체 세대(56.1%)보다 9.9%p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67.9%)보다는 낮게 나타남
 - 상용근로자 비율은 울산(68.1%), 부산(66.7%), 경남(64.5%) 순이며, 경남은 전체세대와 끼인세대의 차이가 12.1%p로 가장 크게 나타남

【표Ⅱ-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2025)

(단위: %, %p)

구분		합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¹⁾
전 국	전체세대 ²⁾	100.0	57.7	19.9	22.4
	끼인세대	100.0	66.0	12.5	21.5
	차이 ³⁾	0.0	8.3	-7.4	-0.9
수도권	전체세대	100.0	62.2	19.7	18.1
	끼인세대	100.0	67.9	12.7	19.4
	차이	0.0	5.7	-7.0	1.3
동남권	전체세대	100.0	56.1	21.0	23.0
	끼인세대	100.0	65.9	12.5	21.6
	차이	0.0	9.9	-8.5	-1.4
부산	전체세대	100.0	58.1	22.7	19.2
	끼인세대	100.0	66.7	13.0	20.2
	차이	0.0	8.6	-9.6	1.0
울산	전체세대	100.0	61.5	20.7	17.8
	끼인세대	100.0	68.1	13.8	18.1
	차이	0.0	6.6	-6.9	0.3
경남	전체세대	100.0	52.4	19.4	28.3
	끼인세대	100.0	64.5	11.5	24.0
	차이	0.0	12.1	-7.8	-4.3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주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주2) 전체세대: 15세 이상 인구, 3) 차이: 끼인세대-전체세대

3. 산업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는 제조업(25.5%), 도소매업(12.1%),
보건·사회복지(8.7%) 순으로 나타남

- (산업별)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산업은 제조업(25.5%), 도소매업(12.1%), 보건·사회복지(8.7%)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수도권 끼인세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동남권 끼인세대는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사회복지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임
- (제조업) 동남권 끼인세대의 제조업 취업자 비중(25.5%)은 전국(17.8%) 및 수도권(15.4%)보다 높게 나타남
-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울산(33.1%), 경남(29.6%), 부산(18.2%) 순으로 나타남

【표 II -3】 산업별 상위 취업자(3개) (2025)

(단위: %)

구분		1위	2위	3위
전 국	전체세대 ¹⁾	제조업(15.2%)	도소매업(11.2%)	보건·사회복지(11.0%)
	끼인세대	제조업(17.8%)	도소매업(12.6%)	교육서비스업(8.3%)
수도권	전체세대	제조업(13.8%)	도소매업(12.6%)	보건·사회복지(9.6%)
	끼인세대	제조업(15.4%)	도소매업(13.9%)	교육서비스업(8.0%)
동남권	전체세대	제조업(20.8%)	보건·사회복지(12.8%)	도소매업(10.9%)
	끼인세대	제조업(25.5%)	도소매업(12.1%)	보건·사회복지(8.7%)
부산	전체세대	제조업(15.1%)	보건·사회복지(14.8%)	도소매업(13.3%)
	끼인세대	제조업(18.2%)	도소매업(15.4%)	보건·사회복지(9.5%)
울산	전체세대	제조업(30.5%)	보건·사회복지(9.6%)	도소매업(9.3%)
	끼인세대	제조업(33.1%)	도소매업(9.2%)	건설업(9.0%)
경남	전체세대	제조업(23.2%)	보건·사회복지(11.8%)	농림어업(10.3%)
	끼인세대	제조업(29.6%)	도소매업(10.2%)	교육서비스업(9.0%)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 고용조사(상반기)」

주1) 전체세대: 15세 이상 인구

주2)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주3) 보건·사회복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의미함

4. 직업별 취업자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24.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9%) 순으로 나타남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의 직업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24.5%),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9%), 사무종사자(22.2%) 순으로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의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비중은 전국(19.8%), 수도권(16.5%)보다 높으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22.9%)은 전국(28.4%), 수도권(33.5%)보다 낮게 나타남
- 부산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5%) 비중이 높은 반면, 울산, 경남은 기능·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각각 35.6%, 24.5%)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Ⅱ -4】 직업별 취업자 (2025)

(단위: %)

구분		계	관리·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조립	단순 노무 종사자
전 국	전체세대 ¹⁾	100.0	24.3	17.8	21.1	4.9	18.1	13.9
	끼인세대	100.0	28.4	22.1	19.5	1.6	19.8	8.6
수도권	전체세대	100.0	29.8	19.8	20.7	1.0	15.9	12.8
	끼인세대	100.0	33.5	23.2	18.3	0.3	16.5	8.1
동남권	전체세대	100.0	18.7	17.0	21.7	4.6	22.5	15.5
	끼인세대	100.0	22.9	22.2	20.1	1.6	24.5	8.6
부산	전체세대	100.0	20.8	19.6	24.0	0.5	19.2	15.9
	끼인세대	100.0	24.5	24.5	21.9	0.3*	20.4	8.3
울산	전체세대	100.0	18.6	13.4	19.5	1.1	34.4	13.0
	끼인세대	100.0	21.1	17.2	17.7	0.3*	35.6	8.0
경남	전체세대	100.0	16.8	15.7	20.3	9.6	21.7	15.9
	끼인세대	100.0	22.0	21.9	19.4	3.3	24.5	9.1

출처: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상반기)」

주1) 전체세대: 15세 이상 인구

주2)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적용

5. 근로 및 사업소득

‘24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4,922만 원으로 나타남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주된 일자리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은 4,922만 원으로, 전체세대(4,030만 원)보다 892만 원 높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5,662만 원), 부산(4,893만 원), 경남(4,682만 원) 순으로 나타났고, 끼인세대와 전체세대와의 차이는 부산이 995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울산은 전체세대(4,800만 원)는 수도권(4,560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끼인세대(5,662만 원)에서는 수도권(5,800만 원)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 II-5-1】 권역별 근로 및 사업소득 (2024) 【그림 II-5-2】 시도별 근로 및 사업소득 (2024)

(단위: 만 원)

(단위: 만 원)



【표 II-5】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¹⁾ (2024)

(단위: 만 원)

구분	전 국	수도권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전체세대 ²⁾	4,241	4,560	4,030	3,898	4,800	3,876
끼인세대	5,326	5,800	4,922	4,893	5,662	4,682
차이 ³⁾	1,085	1,240	892	995	862	806

출처: 국가데이터처「인구통계등록부통합분석DB」

주1) 내국인 중 결측을 제외한 주된 일자리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 (행정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취업자는 제외되었으며, 행정자료로 입수되는 소득자료만 집계됨)

주2) 통계작성 기준일(매년 11월 1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인 내국인

주3) 차이: 끼인세대-전체세대

Ⅲ. 경제 상황

1. 총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전체세대 가구보다
자산·부채·소득 모두 높게 나타남

-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602만 원, 평균 부채는 8,939만 원, '24년 기준 평균 소득은 8,343만 원으로 모두 전체세대 가구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억 6,663만 원으로 전국(5억 1,198만 원) 및 수도권(6억 3,516만 원)보다 낮게 나타남
-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6%로, 전체세대(17.0%)보다 높고, 전국(20.5%), 수도권(20.4%)보다는 낮게 나타남

【그림Ⅲ-1-1】 가구의 순자산 (2025)

(단위: 만 원)



【그림Ⅲ-1-2】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 (2025)

(단위: %)



【표Ⅲ-1】 가구의 경제상황 (2025)¹⁾

(단위: 만 원, %)

권역	가구	자산 (A)	부채 (B)	순자산 (A-B)	소득 (C)	비소비지출 (D)	처분가능소득 (C-D)	부채/자산 (B/A)
전 국	전체세대	56,678	9,534	47,144	7,427	1,396	6,032	16.8
	끼인세대	64,409	13,211	51,198	9,431	2,008	7,423	20.5
수도권	전체세대	70,926	12,094	58,832	8,118	1,608	6,510	17.1
	끼인세대	79,793	16,277	63,516	10,121	2,234	7,887	20.4
동남권	전체세대	42,651	7,257	35,394	6,624	1,208	5,417	17.0
	끼인세대	45,602	8,939	36,663	8,343	1,652	6,690	19.6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조사 실시 연도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은 조사 연도 3월 말 기준, 소득, 지출은 전년 기준 자료임

2. 자산의 규모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나타남

-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 5,602만 원으로 전체세대(4억 2,651만 원)보다 2,951만 원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6억 4,409만 원) 및 수도권(7억 9,793만 원)보다 낮게 나타남
- 전국·수도권과 비교하면 동남권 끼인세대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실물자산 중 부동산에서 크게 차이 남

【그림Ⅲ-2-1】 가구 자산의 규모 (2025)

(단위: 만 원)



【그림Ⅲ-2-2】 동남권 유형별 자산 (2025)

(단위: 만 원)



【표Ⅲ-2】 자산의 규모 (2025)

(단위: 만 원)

권역	가구	자산 (A+B)	금융자산 (A)			실물자산 (B)	부동산	기타실물 자산 ¹⁾
			금융자산 (A)	저축액	전·월세 보증금			
전 국	전체세대	56,678	13,690	9,960	3,730	42,988	40,298	2,689
	끼인세대	64,409	16,451	11,388	5,063	47,958	44,552	3,406
수도권	전체세대	70,926	16,642	10,745	5,897	54,284	52,040	2,244
	끼인세대	79,793	19,807	11,911	7,897	59,986	57,266	2,720
동남권	전체세대	42,651	10,467	8,744	1,723	32,184	29,385	2,799
	끼인세대	45,602	12,450	10,500	1,950	33,152	29,531	3,621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자동차, 귀중품, 회원권 등이 포함됨

3. 부채의 규모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939만 원임

- '25년 3월 말 기준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939만 원으로 전체세대(7,257만 원)보다 1,681만 원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1억 3,211만 원) 및 수도권(1억 6,277만 원)보다는 낮게 나타남
- 전국·수도권과 비교하면 동남권 끼인세대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 규모는 낮았으나, 신용대출은 높게 나타남

【그림 Ⅲ-3-1】 가구 부채의 규모 (2025)

(단위: 만 원)



【그림 Ⅲ-3-2】 동남권 유형별 부채 (2025)

(단위: 만 원)



【표 Ⅲ-3】 부채의 규모 (2025)

(단위: 만 원)

권역	가구	부채 (A+B)	금융부채 (A)				임대보증금 (B)
			금융부채 (A)	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¹⁾	
전 국	전체세대	9,534	6,795	5,565	833	396	2,739
	끼인세대	13,211	9,424	7,711	1,192	521	3,787
수도권	전체세대	12,094	7,999	6,797	820	382	4,095
	끼인세대	16,277	10,743	9,225	1,112	407	5,534
동남권	전체세대	7,257	5,836	4,500	921	416	1,421
	끼인세대	8,939	7,080	5,298	1,228	554	1,858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신용카드 관련대출, 개인·직장에서 빌린 돈, 외상 및 할부, 낼 갚돈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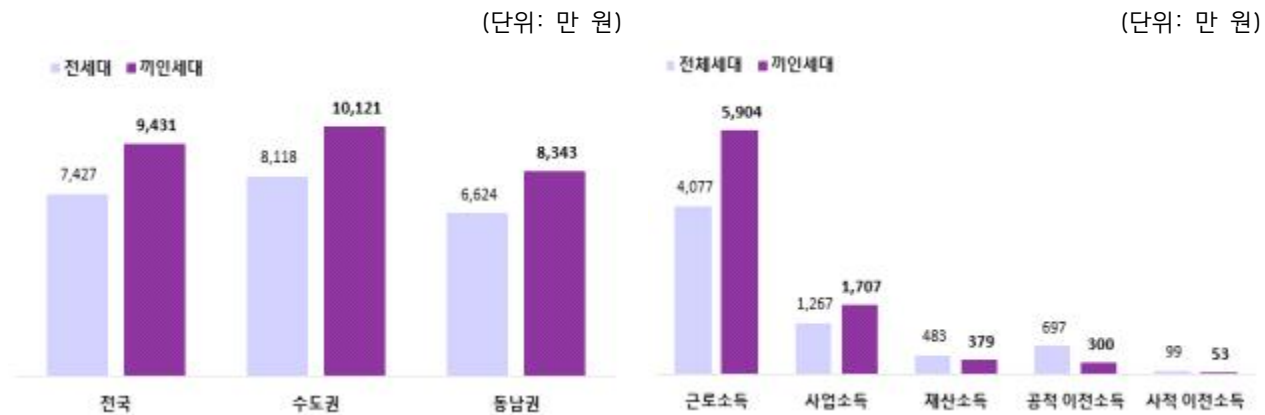
4. 가구소득의 규모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8,343만 원으로 나타남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득은 8,343만 원으로, 전체세대(6,624만 원) 보다 1,719만 원 높으나, 전국(9,431만 원) 및 수도권(1억 121만 원)보다 낮게 나타남
- 소득원천별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끼인세대 가구가 전체세대 가구보다 높으며,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은 전체세대 가구가 더 높게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소득 중앙값은 7,252만 원으로 나타남

【그림Ⅲ-4-1】 가구소득의 규모 (2024)

【그림Ⅲ-4-2】 동남권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2024)



【표Ⅲ-4】 가구소득의 규모 (2024)

(단위: 만 원)

권역	가구	평균						중앙값 ³⁾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¹⁾	사적 이전소득 ²⁾	
전 국	전체세대	7,427	4,747	1,299	614	660	108	5,800
	끼인세대	9,431	6,891	1,719	489	270	62	7,917
수도권	전체세대	8,118	5,488	1,229	709	586	105	6,210
	끼인세대	10,121	7,611	1,616	567	264	64	8,333
동남권	전체세대	6,624	4,077	1,267	483	697	99	5,284
	끼인세대	8,343	5,904	1,707	379	300	53	7,252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주2) 사적 이전소득: 가구간 이전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등

주3) 중앙값은 가구소득에 대한 금액임

5. 가구 소비지출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4,107만 원으로 나타남

✓ 정의: 가구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지출한 비용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4,107만 원으로, 전체세대(3,077만 원)보다 1,030만 원 높았으나, 전국(4,301만 원) 및 수도권(4,548만 원) 보다는 낮게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전체세대보다 소비지출이 많고, 특히 교육비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비목별로 식료품비(1,280만 원), 기타지출(1,116만 원), 교육비(590만 원) 순으로 지출됨

【그림Ⅲ-5-1】 가구 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그림Ⅲ-5-2】 동남권 비목별 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표Ⅲ-5】 가구 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권역	가구	계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기타 ¹⁾
전 국	전체세대	3,221	1,065	408	292	195	265	166	829
	끼인세대	4,301	1,327	471	711	184	332	218	1,056
수도권	전체세대	3,453	1,155	454	356	198	258	173	858
	끼인세대	4,548	1,416	505	819	200	323	217	1,068
동남권	전체세대	3,077	1,037	353	229	202	249	160	846
	끼인세대	4,107	1,280	419	590	178	311	213	1,116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기타: 오락·문화, 의료·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및 그 이외 소비지출

6. 가구 비소비지출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652만 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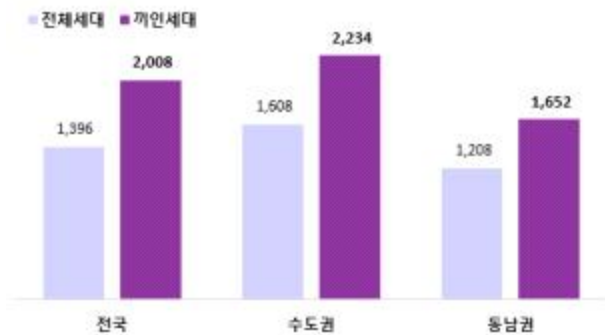
✓ 정의: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과 같이 의무성이 부여된 지출

□ ‘24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1,652만 원으로, 전체세대 (1,208만 원)보다 445만 원 높았으나, 전국(2,008만 원) 및 수도권(2,234만 원) 보다는 낮게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는 모든 비목에서 전체세대보다 비소비지출이 많고, 특히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에서 차이가 큼
- 비목별로 공적연금·사회보험료(592만 원), 세금(522만 원), 이자비용(270만 원) 순으로 지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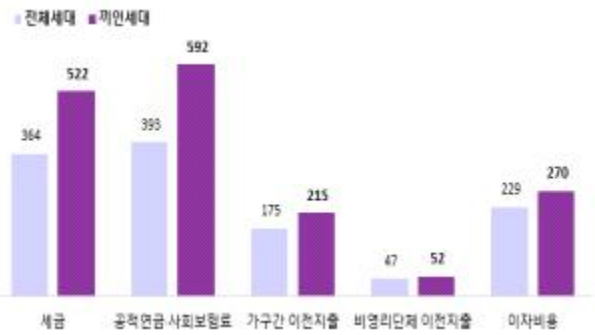
【그림Ⅲ-6-1】 가구 비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그림Ⅲ-6-2】 동남권 비목별 비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표Ⅲ-6】 가구 비소비지출 (2024)

(단위: 만 원)

권역	가구	계	세금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¹⁾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비용
전 국	전체세대	1,396	472	448	158	47	271
	끼인세대	2,008	710	654	208	53	383
수도권	전체세대	1,608	597	506	145	40	320
	끼인세대	2,234	867	690	195	45	437
동남권	전체세대	1,208	364	393	175	47	229
	끼인세대	1,652	522	592	215	52	270

출처: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2025)」

주1)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여금,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기여금/ 사회보험: 건강·고용보험료

Ⅳ. 주관적 인식

1. 계층의식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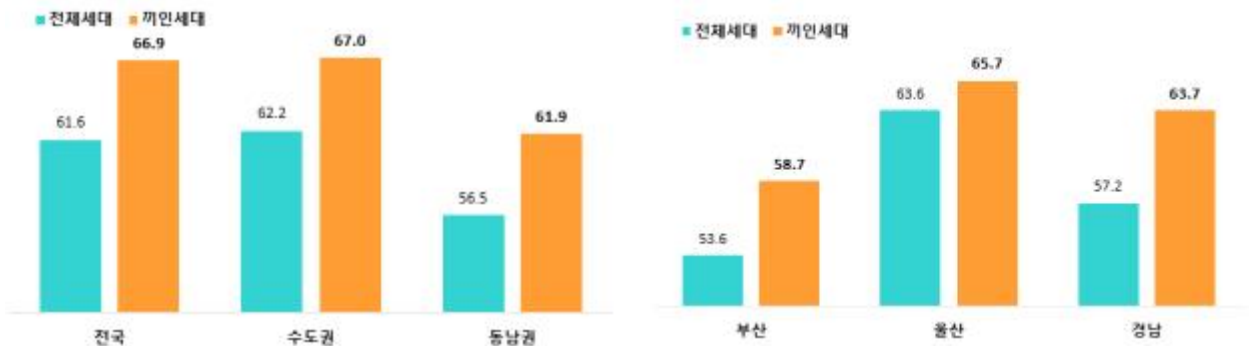
✓ 정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중 자신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61.9%로, 전체세대(56.5%)보다 5.4%p 높았으나, 전국(66.9%) 및 수도권(67.0%)보다는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울산(65.7%), 경남(63.7%), 부산(58.7%) 순이며, 부산·울산·경남 모두 끼인세대는 전체세대보다 ‘상’, ‘중’ 비중은 높고, ‘하’ 비중은 낮게 나타남

【그림Ⅳ-1-1】 권역별 계층의식 ‘중’ 비중 (2025) 【그림Ⅳ-1-2】 시도별 계층의식 ‘중’ 비중 (2025)

(단위: %)

(단위: %)



【표Ⅳ-1】 계층의식 (2025)

(단위: %, %p)

구분	계	전체세대 ¹⁾			계	끼인세대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상 ²⁾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전국	100.0	3.8	61.6	34.6	100.0	4.0	66.9	29.1	0.2	5.3	-5.5
수도권	100.0	4.6	62.2	33.3	100.0	4.5	67.0	28.5	-0.1	4.9	-4.8
동남권	100.0	3.5	56.5	40.0	100.0	3.9	61.9	34.2	0.4	5.4	-5.8
부산	100.0	4.6	53.6	41.9	100.0	5.2	58.7	36.0	0.7	5.2	-5.8
울산	100.0	3.7	63.6	32.7	100.0	4.0	65.7	30.3	0.4	2.1	-2.4
경남	100.0	2.3	57.2	40.5	100.0	2.6*	63.7	33.8	0.3	6.5	-6.7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5년)」

주1) 19세 이상 인구

주2) 상상(上上), 상하(上下)를 모두 ‘상’ 응답으로 봄(‘중’, ‘하’ 응답도 같음)

2. 고용 안정성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 10명 중 5명 이상은
실직·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

✓ 정의: 취업자 중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직장(직업)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취업자 중 평소 가까운 미래에 직장(직업)을 잃거나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비중은 56.9%로, 전체세대(52.7%)보다 4.3%p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57.2%) 및 수도권(60.6%)보다는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고용 불안감은 경남(59.7%), 울산(57.9%), 부산(53.5%) 순으로 나타남
- 부산·울산·경남 모두 끼인세대가 전체세대보다 고용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은 전체세대와의 차이가 6.6%p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Ⅳ-2-1】 권역별 고용 ‘불안함’ 비중 (2025) 【그림Ⅳ-2-2】 시도별 고용 ‘불안함’ 비중 (2025)
(단위: %)



【표Ⅳ-2】 고용 안정성 (2025)

(단위: %, %p)

구분	계	전체세대 ¹⁾		계	끼인세대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불안함 ²⁾	불안하지 않음 ³⁾		불안함	불안하지 않음	불안함	불안하지 않음
전 국	100.0	54.3	45.7	100.0	57.2	42.8	2.9	-2.9
수도권	100.0	58.5	41.5	100.0	60.6	39.4	2.1	-2.1
동남권	100.0	52.7	47.3	100.0	56.9	43.1	4.3	-4.3
부산	100.0	50.5	49.5	100.0	53.5	46.5	3.0	-3.0
울산	100.0	57.6	42.4	100.0	57.9	42.1	0.3	-0.3
경남	100.0	53.1	46.9	100.0	59.7	40.3	6.6	-6.6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5년)」

주1) 19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주2) 불안함 매우 느낌, 불안함 약간 느낌 응답의 합

주3) 불안함 전혀 안 느낌, 불안함 별로 안 느낌 응답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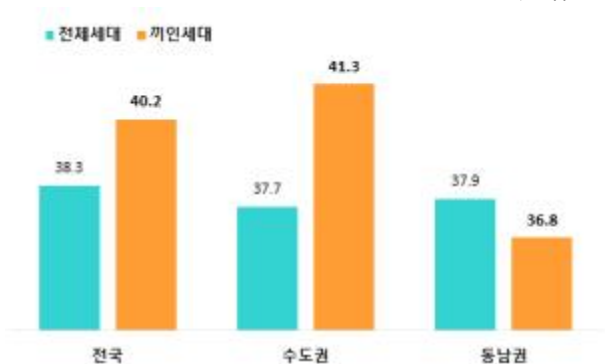
3. 일자리 만족도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6.8%로, 전체세대보다 1.1%p 낮게 나타남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임금근로자 중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는 36.8%로 전체세대(37.9%)보다 1.1%p 낮으며, 전국(40.2%) 및 수도권(41.3%)보다 낮게 나타남
- 동남권은 전국·수도권과 달리 끼인세대의 일자리 만족 비중이 전체세대보다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울산(40.4%), 부산(36.4%), 경남(35.8%) 순이며, 부산과 경남은 끼인세대의 만족 비중이 전체세대보다 낮았으나, 울산은 높게 나타남

【그림Ⅳ-3-1】 권역별 일자리 ‘만족’ 비중 (2025)

(단위: %)



【그림Ⅳ-3-2】 시도별 일자리 ‘만족’ 비중 (2025)

(단위: %)



【표Ⅳ-3】 일자리 만족도 (2025)

(단위: %, %p)

구분	계	전체세대 ¹⁾			계	끼인세대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 국	100.0	38.3	50.4	11.3	100.0	40.2	48.0	11.7	1.9	-2.4	0.5
수도권	100.0	37.7	50.4	11.9	100.0	41.3	46.4	12.3	3.6	-4.0	0.4
동남권	100.0	37.9	50.8	11.3	100.0	36.8	50.2	13.1	-1.1	-0.6	1.7
부산	100.0	37.0	52.3	10.7	100.0	36.4	48.8	14.8	-0.6	-3.5	4.1
울산	100.0	39.9	47.4	12.7	100.0	40.4	47.6	12.0	0.5	0.1	-0.7
경남	100.0	38.1	50.5	11.5	100.0	35.8	52.3	11.9	-2.2	1.8	0.4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5년)」

주1) 취업자 중 종사상지위가 임금근로자인 사람

주2)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의 합

주3)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응답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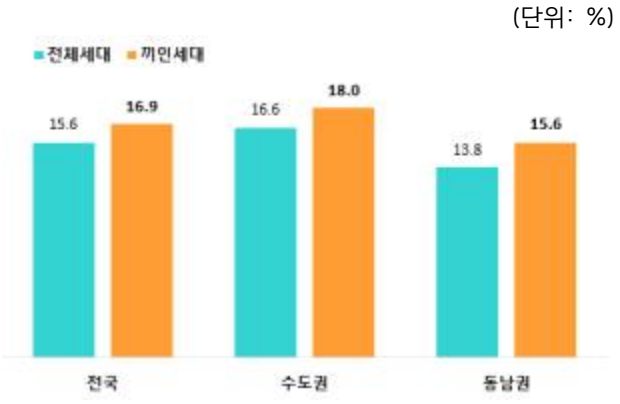
4. 주관적 소득수준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 중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 는 응답은 15.6%로, 전체세대 가구보다 1.8%p 높게 나타남

✓ 정의: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했을 때, 가구의 실제 소득수준에 대한 생각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 가구 중 가구의 한 달 평균 최소 생활비와 비교하여, 가구의 실제 소득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5.6%로, 전체세대(13.8%)보다 1.8%p 높게 나타났으나, 전국(16.9%) 및 수도권(18.0%)보다는 낮게 나타남
- 소득수준이 여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경남(17.2%), 울산(16.2%), 부산(13.6%) 순이며, 부산은 끼인세대 가구의 ‘여유 있음’ 응답 비중이 전체세대보다 1.0%p 낮게 나타남

【그림Ⅳ-4-1】 권역별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있음’ 비중 (2025)



【그림Ⅳ-4-2】 시도별 주관적 소득수준 ‘여유 있음’ 비중 (2025)



【표Ⅳ-4】 주관적 소득수준 (2025)

(단위: %, %p)											
구분	계	전체세대 ¹⁾			끼인세대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여유 있음 ²⁾	적당함	부족함 ³⁾	계	여유 있음	적당함	부족함	여유 있음	적당함	부족함
전 국	100.0	15.6	32.8	51.6	100.0	16.9	32.3	50.7	1.3	-0.4	-0.9
수도권	100.0	16.6	30.9	52.5	100.0	18.0	30.9	51.1	1.4	0.0	-1.4
동남권	100.0	13.8	34.6	51.6	100.0	15.6	34.2	50.3	1.8	-0.5	-1.3
부산	100.0	14.6	34.7	50.6	100.0	13.6	33.5	52.9	-1.0	-1.2	2.3
울산	100.0	14.4	29.6	56.1	100.0	16.2	30.1	53.6	1.9	0.6	-2.4
경남	100.0	12.7	36.1	51.2	100.0	17.2	36.2	46.6	4.5	0.1	-4.6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5년)」

주1) 19세 이상 가구주

주2) 매우 여유 있음, 약간 여유 있음 응답의 합

주3) 매우 부족함, 약간 부족함 응답의 합

5. 스트레스 정도

‘24년 동남권 끼인세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전체세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남

- 동남권 끼인세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 모두에서 전체 세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부산, 울산, 경남 끼인세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 모두 에서 전체세대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울산의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M-5】 스트레스 정도 (2024)

(단위: %, %p)

구분		가정생활 스트레스			직장생활 스트레스			전반적인 일상생활 스트레스		
		계	느끼는 편 ³⁾	느끼지 않는 편 ⁴⁾	계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계	느끼는 편	느끼지 않는 편
전 국	전체세대 ¹⁾	100.0	34.7	65.3	100.0	62.1	37.9	100.0	38.4	61.6
	끼인세대	100.0	39.8	60.2	100.0	68.7	31.3	100.0	43.8	56.2
	차이 ²⁾	0.0	5.1	-5.1	0.0	6.6	-6.6	0.0	5.3	-5.3
수도권	전체세대	100.0	36.6	63.4	100.0	66.4	33.6	100.0	40.8	59.2
	끼인세대	100.0	42.4	57.6	100.0	71.9	28.1	100.0	46.7	53.3
	차이	0.0	5.8	-5.8	0.0	5.4	-5.4	0.0	5.9	-5.9
동남권	전체세대	100.0	34.5	65.5	100.0	61.8	38.2	100.0	39.9	60.1
	끼인세대	100.0	37.7	62.3	100.0	67.2	32.8	100.0	43.9	56.1
	차이	0.0	3.1	-3.1	0.0	5.4	-5.4	0.0	4.0	-4.0
부산	전체세대	100.0	34.4	65.6	100.0	63.8	36.2	100.0	41.7	58.3
	끼인세대	100.0	38.7	61.3	100.0	69.7	30.3	100.0	46.5	53.5
	차이	0.0	4.3	-4.3	0.0	5.9	-5.9	0.0	4.7	-4.7
울산	전체세대	100.0	36.9	63.1	100.0	61.9	38.1	100.0	34.6	65.4
	끼인세대	100.0	42.9	57.1	100.0	71.0	29.0	100.0	40.6	59.4
	차이	0.0	6.0	-6.0	0.0	9.1	-9.1	0.0	5.9	-5.9
경남	전체세대	100.0	33.9	66.1	100.0	59.9	40.1	100.0	39.7	60.3
	끼인세대	100.0	35.0	65.0	100.0	63.7	36.3	100.0	42.6	57.4
	차이	0.0	1.1	-1.1	0.0	3.8	-3.8	0.0	2.9	-2.9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4년)」

주1) 13세 이상 인구

주2) 끼인세대와 전체세대의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주3) 매우 느낌, 느끼는 편임 응답의 합

주4) 전혀 느끼지 않음, 느끼지 않는 편임 응답의 합

6. 삶의 만족도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6.5%로, 전체세대보다 2.3%p 높게 나타남

- ‘25년 동남권 끼인세대의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46.5%로 전체세대(44.2%)보다 2.3%p 높았으나, 전국(47.4%) 및 수도권(47.1%)보다는 낮게 나타남
- 시도별로 삶에 만족하는 비중은 부산(48.3%), 경남(45.4%), 울산(44.6%) 순이며, 부산과 경남은 끼인세대의 만족 비중이 전체세대보다 높았으나, 울산은 전체세대보다 낮게 나타남

【그림Ⅳ-6-1】 권역별 삶의 만족도 ‘만족’ 비중 (2025) 【그림Ⅳ-6-2】 시도별 삶의 만족도 ‘만족’ 비중 (2025)
(단위: %)



【표Ⅳ-6】 삶의 만족도 (2025)

(단위: %, %p)

구분	계	전체세대 ¹⁾			계	끼인세대			차이(끼인세대-전체세대)		
		만족 ²⁾	보통	불만족 ³⁾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 국	100.0	45.3	41.4	13.3	100.0	47.4	40.1	12.5	2.0	-1.3	-0.8
수도권	100.0	45.6	40.5	13.9	100.0	47.1	40.3	12.6	1.4	-0.2	-1.3
동남권	100.0	44.2	42.4	13.4	100.0	46.5	40.2	13.3	2.3	-2.2	0.0
부산	100.0	44.5	42.0	13.4	100.0	48.3	38.0	13.7	3.8	-4.0	0.2
울산	100.0	45.5	42.4	12.1	100.0	44.6	42.4	13.0	-0.9	0.0	0.9
경남	100.0	43.5	42.8	13.7	100.0	45.4	41.4	13.2	2.0	-1.4	-0.6

출처: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2025년)」

주1) 13세 이상 인구

주2) 매우 만족, 약간 만족 응답의 합

주3)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응답의 합